

# 토정비결

1973년 7월 15일 | 양력 | 남성

토정수

947

## 연운 (한 해의 운세)

올해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봄에 뿐린 씨앗이 가을에 황금빛 열매를 맺듯, 귀하의 성실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. 상반기에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찾아오고, 하반기에는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니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건강을 잘 돌보며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다면,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--- ##

### 1월

새해를 여는 1월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기에 좋은 시기입니다.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.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큰 힘이 되니, 따뜻한 대화로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##

### 2월

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풀리는 달입니다.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더욱 활기찬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. ##

### 3월

봄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. 투자나 사업과 관련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니,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단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.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. ##

### 4월

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기운이 강한 달입니다.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되, 주변과의 협력을 잊지 않으면 더욱 빛나는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. ##

### 5월

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가족 간의 화목이 더욱 깊어지는 달입니다.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특히 좋아지며,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.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##

### 6월

학문과 지식을 쌓기에 좋은 시기입니다.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직장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니,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. ##

## 7월

생일이 있는 이달은 특히 귀한 운이 따르는 시기입니다. 재물운이 상승하여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된 빚을 청산할 기회가 옵니다.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. ##

## 8월

대인관계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 달입니다. 모임이나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 귀인을 만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남을 돋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공덕이 배가되어 돌아올 것입니다. ##

## 9월

안정과 평화가 깃드는 달입니다.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좋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. 재물을 모으기 좋은 시기이니 계획적으로 저축하고,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정성을 들이면 복이 깃듭니다. ##

## 10월

가을의 풍요로움처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달입니다. 사업이나 직장에서 인정받아 보상을 받거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정성껏 모시면 가문에 경사가 생길 것입니다. ##

## 11월

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, 마음을 편안히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. ##

## 12월

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감사와 나눔의 달입니다.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돋는다면 내년에 더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.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, 더욱 풍요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. --- \*\*토정비결 당부 말씀:\*\* 한 해 내내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, 어려운 이웃을 돋는 선행을 실천하시면 하늘의 복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.

---

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.  
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